

#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4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편 27:1-3 .....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 30장(새 14장) .....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6번(새 9번) .....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사랑으로 지으시고 붙드시며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넘어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어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니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있어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두렵고 가슴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겸비함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 마가복음 8:1-10 .....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사랑할 때 비로소 보이는 것

봉 헌(offering) ..... 348장(새 213장) .....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찬 송(Hymn) ..... 505장(새 452장) .....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 후에 소망 속회로 모입니다.
3. 예배 후에 본당 입구 테이블 위에 있는 주소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헌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마가복음 8:1-10**

1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4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 사람은 약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그들을 흠여 보내시고 10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나라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2. 예수님께서 사천 명의 무리를 먹이기 위해 사용하신 음식은 어떤 것이었으며, 먹고 남은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5-10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동기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과 표적이며, 다른 하나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고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은 제자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줄행랑을 치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극적인 반전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친히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의 허기짐을 아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표적에 놀라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항상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